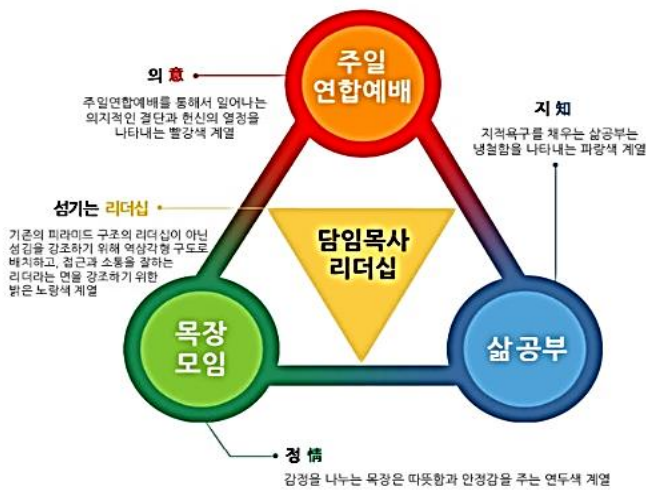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경주 목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참된 믿음 (다니엘 3: 1-18)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하만의 분노” (에스더 3:5-13)

교만한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기분을,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또한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에도 대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가 생길때? 그렇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기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는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트리는 죄가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에 대한 끓어 오르는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개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는 사단이 원하는 악한 계획을 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격상 자신은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분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분을 내기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감정과 분을 다스려 분노함대로 하는 실수의 말과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함에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하만은 분을 억제하지 않아 미움으로 살인을 계획했지만 그 악한 계획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분노를 그치지 않으면, 분노의 마음 반드시 죄를 동반합니다. 화를 내든 마음에 품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죄의 대가가 있음을 인식하고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분노가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화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능하십니다. 분노하는 자가 아닌 분노를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소식

- 1.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주일 예배 - 코로나 상황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3.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화-토 6 AM)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실시간 주일 예배 - 주일 예배를 실시간 중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0/25	11/01	11/08	11/15
대표기도	유경주	김영란	고현명	조현숙
헌화성도	정병철	성미숙	이화선	이진수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700.00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절	11 월 22 일 (주일)
12 월	성탄축하예배	12 월 20 일 (주일)
	정기성도총회	날짜 미정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 (목)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샬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옥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샬롬목장	조현숙/조정옥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말씀대로 사는 훈련

우리가 다들 동의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머리로 안다고 아는 만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테니스에 대해 책으로, 혹은 영상으로 어떻게 공을 쳐야 하고 어떻게 서브를 놓아야 하고, 어떻게 백핸드, 포핸드를 쳐야 하는지를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 코트에 나가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테니스를 잘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인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TV 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 운동선수를 보면서 그들이 실수하면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며 분노하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운동장에서 직접 뛰다면 자신이 말한 것처럼 뛰고 수행할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넘쳐 납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삶, 섬기고 사랑하는 삶.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줄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했기에 그 년수가 나의 믿음과 영적성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신앙의 연수, 과거에 수고한 봉사들, 직분, 그리고 수없이 듣고 배운 성경지식으로 스스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수고 역시 울리는 팽과리와 같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삶의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은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을 열심히 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지만, 내 감정으로만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고 어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 노력함이 있을 때 조금씩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는 참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현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